

## 농식품부, 중동전쟁 대응 식품기업 부담 줄인다

-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 공동으로 친환경 포장재 전환 지원 및 물류 공동배송 시스템 도입으로 식품기업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에 대응하여 식품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옥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4월 8일(수) 오전,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기업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원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 나프타는 과자·라면 포장지, 음료 용기 등 대부분의 식품포장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핵심원료로, 가격상승은 곧 식품기업의 제조원가 증가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식품기업들은 포장재 비용 부담과 함께 원료 수급 불안이라는 이중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 나프타 기반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금속·유리 등 친환경 포장재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체 포장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종이·금속·유리 소재 기반으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요 생산품목,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포장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식품기업이 기존 합성수지 포장재를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할 경우, 식품진흥원의 기업지원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포장재 시험·분석, 제품 안전성 검증, 적용 가능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식품진흥원과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가격 상승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내 ‘물류 공동 집하·배송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 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업별로 택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류비가 높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기업 물량을 통합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물량을 한 곳에 모아서 배송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원료중계공급센터를 집하장으로 지정하여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물류 공동 집하·배송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별 물류비가 20% 이상 절감되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통합·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옥 실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및 나프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에 친환경 포장재 전환과 물류 공동 배송시스템 도입 등으로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현장점검 사진 1부(별송)

담당 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책임자	단 장	문원탁	(044-201-2181)
		담당자	사무관	위철승	(044-201-2184)